

해남군, 미니단호박서 암·당뇨 예방 물질 규명

장내 유익세균 증식 '저항성 전분' 다량 함유...특히 출원 전남도 미래선도연구개발 프로젝트 선정...산업화 박차

해남군이 미니단호박에서 추출한 기능성 전분의 소재를 최초로 규명하고 가공식품 제조기술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전남대학교와 함께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사업을 실시, 지역농특산물에 대한 기능성 식품소재 응용기술 연구를 통해 미니단호박에서 저항성 전분(Resistant Starch)이 다량 함유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저항성 전분은 인체 내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위장관의 허부를 거쳐 대장에 들어가 장내 유익세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상된 세포의 DNA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인체내에서 느끼게 대사돼 소화 가능한 전분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당뇨와 비만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식품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 단호박은 열과 수분처리시 품종에 따라 저항성 전분이 51.4~54.7%까지 증가하는 등 연구대상 작물 중 가장 높은 함유량을 보였다.

해남군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항전분 함량이 증가된 단호박 전분 제조방법과 단호박 분말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등록을 추진하는 등 식품 기능

성 소재에 대한 산업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남군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주도 미래선도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도 산업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 기획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등 총 1억원이 투입된다.

해남군은 프로젝트를 통해 단호박 기능성 식품소재(RS) 응용기술 개발, RS 산업적 생산공정 및 최적조건 연구, 농산물 소재 실증시험센터 구축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저항성 전분 등 소재 추출·가공·상품화 실증시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소재의 산업적인 생산 공정 및 최적 조건에 대한 기획 연구를 추진해 2022년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의 특산물인 미니 단호박에서 식품 기능성 소재가 다량 함유된 것을 확인해 산업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단호박 등 농산물 소재를 활용한 가공식품 상품화와 농산물 소재 실증시험센터를 구축으로 농식품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명현관(왼쪽) 해남군수와 단호박 재배농민이 해남 특산물인 미니단호박을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청화대중사 기념관 조성 무안군, 설계작품 선정

무안군은 청화대중사 기념사업 건축 설계 공모에서 원건축사사무소(주)의 작품(사진)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화대중사 기념사업은 무안군 윤남면 성내리 해운사 일원에 사업비 53억원을 들여 2023년 개관을 목표로 기념관, 명상관 등 연면적 75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당선작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배치계획과 전통양식을 재해석한 현대적 평면 계획이 우수한 작품이다. 특히 무애길, 무애림, 유수선방, 토굴선방 등 명상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공간이 높게 평가받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주변 산책로와 연계한 주민 쉼터로 조성하고 청화스님의 업적을 조명할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암군, 군민·소상공인에 90억 긴급투입

1인당 10만원·소상공인 100만원... 아동양육·택시업 설 이전 지급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주민생활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차별화한 파격적인 시책을 발굴·시행한다.

먼저 모든 군민에게 2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 1인당 10만원으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222곳에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긴급지원대책비 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영암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군비 32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하는 전남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영암군이 최초다. 다음 달 5일까지 신청받아 설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도 지원한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만 7세 미만 아동 2300여명을 대상으로 군비 2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긴급 지급한다. 1인당 1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긴급생계비임을 감안, 설 이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승객이 현저하게 감소해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101명을 대상으로 군비 1억1000만원을 투입, 1인당 100만원을 다음달 5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에 전 군민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해양치유 산업화 시동...4대 분야 추진

해양치유공단 설립...공공시설 인프라 구축·민자 유치 활성화 등

완도군은 2021년을 '해양치유 산업화 원년'으로 정하고 4대 중점 분야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추진 분야는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해양치유 연계 프로그램 개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등이다.

지난해까지 해양치유산업 기초자원 조사와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부터는 해양치유센터 등 각종 공공

시설을 준공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화에 무게를 둔다는 게 완도군의 계획이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는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해양기후치유센터(2월),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7월), 해양문화치유센터(9월), 청산 해양치유공원(11월) 올해 내 준공 예정이다. 이를 운영할 해양치유공단도 10월 설립한다.



완도군은 지난해 약산면에서 찾아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노르딕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들. <완도군 제공>

지난해까지 1만3000여명이 참여했던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횡수를 늘려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12개 읍면을 찾아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24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관광객들을 위한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과 개인 맞춤형 숙박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해양치유 호텔&리조트와 해양치유레지던스 등 민간투자 유치는 2030년 최종 목표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또 해조류 소재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해 기초 소재 연구와 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될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를 2022년 2월까지 건립해 기업연구소 10개소와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0억원 규모의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2015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해양치유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